

##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공격 행동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양동욱 · 윤가현

이 연구는 성적 자극과 공격 행동 경향성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포르노 동영상에 성적 자극으로 이용되었으며, 공격 행동 경향성은 닥트 던지기 과제를 통해 측정되었다. 남녀 대학생 112명을 무선적으로 실험 집단(포르노 자극)이나 비교 집단(중립 자극)에 할당시킨 후 자극 노출에 따른 공격 행동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중립 자극보다도 포르노 자극에 노출될 경우 공격 행동 경향성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공격 행동 경향성에서 성차를 보였는데, 포르노 자극에 노출될 경우 공격 행동의 목표로 남성보다 여성보다 여자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한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남자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주제어: 공격 행동 경향성, 닥트던지기 과제, 성적 자극

---

**양동욱**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y2836@hanmail.net (교신저자)

**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ghyoun@chonnam.ac.kr

- \* 이 논문은 2007년 8월 9일 Canada, Vancouver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Academy of Sex Research의 제33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Priming effect of sexual stimuli on aggressive tendency"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시대 후기에서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정보의 전달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편리함의 추구 영역이 감각적인 욕구충족에까지 확대되면서 인터넷 동영상 등으로 다수 유포되고 있는 포르노 자극들이 연령의 고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손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윤가현, 2002; 이성식, 2004; 주정민, 2005). 이와 같이 포르노에 대한 노출을 사회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일부 성인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김덕모, 2003; 윤가현, 2002; 이성식, 2004; 주정민, 2005; Felson, 1996; Vega & Malamuth, 2007).

성적 자극(sexual stimuli)에 대한 노출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성(sex)과 공격성(aggression)간의 자동적인 연합 또는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연합이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실험 틀의 하나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를 살펴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Mussweiler와 Förster(2000)는 어휘 점화 과제를 통해 성과 공격성의 자동적인 연합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대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어휘판단과제(lexical decision task)를 실시하였는데, 남녀 모두 성 관련 단어(예, 성교)에 점화되었을 때 공격성 관련 단어(예, 야수)에 대한 어휘판단 시간이 가장 빨랐다. 또한 중립 단어 또는 성 관련 단어에 점화시킨 후 다트 던지기(dart throwing) 과제를 통해 공격 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성 관련 단어에 점화된 남성은 중립 단어에 점화된 남성보다 인물 사진을 향해 다트를 더 많이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여성은 점화 조건에 따른 공격 행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역시 긍정적, 부정적 및 중성적 이미지의 사진 30개로부터 다른 실험자(표적)에게 제시할 10개의 사진을 선택하도록 했던 실험 상황에서 남성들은 중립 단어들보다도 성 관련 단어에 점화되었을 때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는데, 특히 표적을 여성이라고 언급 해줄 경우 그 경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은 점화 조건이나 표적의 성별에 따른 공격 행동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틀 내에서는 남녀 모두 성과 공격성간의 자동적 연합이 나타났으나, 성과 공격 행동의 자동적 연합은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Koss, Gidycz, & Wisniewski, 1987; Mussweiler & Förster, 2000).

성과 공격성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또 다른 실험 틀은 주로 남성을 연구대상자로 하면서 영상물 노출을 이용한 것인데, 성적인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Zillmann, 1984). 이러한 틀에서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성적 재료는 포르노인데, 종속변인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태도 변화의 측면에서 포르노에 노출된 개인들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들에게 중립 자극과 포르노 자극 조건중 하나를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노출시킨 후에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측정하였을 때 중립보다도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에서 적대적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Allen, Emmers, Gebhardt, & Giery, 1995b; Demaré, Lips, & Briere, 1993; Fisher & Grenier, 1994; Malamuth, Addison, & Koss, 2000; Pollard, 1995; Seto, Maric, & Barbaree, 2001).

두 번째는 공격 행동의 잠재성 측면에서 포르노에 노출된 개인들이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들에게 중립 자극과 포르노 자극 중 하나를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노출시킨 후에 강간을 범할 가능성이나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다면 강간을 저지르겠느냐는 질문에 중립 자극과 비교하여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Allen et al., 1995b; Barak, Fisher, Belfry, & Lashambe, 1999; Boeringer, 1994; Demaré et al., 1993; Fisher & Grenier, 1994; Malamuth et al., 2000; Pollard, 1995; Seto et al., 2001; Vega & Malamuth, 2007).

세 번째는 공격 행동의 실제성 측면으로 실험실내에서 포르노에 노출된 남성 연구대상자는 타인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공격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Buss(1961)가 고안한 전기충격기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실험에 따르면, 남성에게 분노를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않게 하는 조건에서 중립 자극 또는 포르노 자극 중 하나를 무선적으로 할당하여 보여 준 다음, 그 남성은 자신을 화나게 한 자(실험동조자)에게 학습과제를 주면서 틀린 수행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의 일종으로 전기충격을 가할 기회를 가진다. 이 경우 공격 행동은 전기충격을 가하는 강도로 측정된다. 이러한 실험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립 자극보다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 분노를 경험했던 집단이 그렇지 않았던 집단보다 포르노 자극에 노출될 때 공격성이 더 증가하였다(Allen, D'Alession, & Brezgel, 1995a; Donnerstein, 1980; Donnerstein, 1984; Malamuth et al., 2000; Seto et al., 2001). 또한 연구대상자는 자신을 화나게 한 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 경우,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후 공격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1995a; Donnerstein 1980; Malamuth et al., 2000; Seto et al., 2001).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포르노 노출과 공격성에 관한 Allen 등(1995a)의 meta analysis를 살펴보면, 31개의 연구들 중에서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포함시킨 경우는 4개에 불과했는데, 여성들도 중립 자극보다도 포르노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더 높아졌으며, 또 자신을 화나게 한 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했을 때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후 공격성이 더 증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처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능성을 형성시키거나 유지시킨다. 또한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은 실험실내에서 실험동조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실험동조자가 동성보다 이성일 때 더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성적 자극과 공격성간의 연구들은 실험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부분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들은 평소 포르노 노출 빈도가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rape myth)이나 성비행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다. 먼저, 포르노 노출과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빈번한 포르노의 노출과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간의 상관성이 있었다(이건호·강혜자, 2005). 또한 남학생의 경우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용하는 것과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간의 상관성이 있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이석재·최상진, 2001). 다음으로, 포르노 노출과 성비행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성 청소년의 일부는 포르노에 노출된 후 이성에게 강제적인 성 행동을 시도해보았다고 보고하였으며(남영옥, 2004; 한인영·박인선·백연옥, 2001), 포르노에 빈번히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는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폭력적인 포르노에 노출될수록 성폭력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4).

공격성향의 표출행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느 문화권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점이다(Ember, 1981; Segall, 1988). 특히 어느 문화권에서나 성적인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독단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Zillmann, 1984). 실제로 실험실내에서 개인에게 성적 자극을 노출시켰을 때 공격 행동이 촉진되었는데(Allen et al., 1995a; Malamuth et al., 2000; Seto et al., 2001), 그 경향성은 남녀가 유사하거나(Allen et al., 1995a), 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Koss et al., 1987; Mussweiler & Förster,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성과 공격성간의 실험적 연구들이 주로 남성을 연구대상자로 삼았기 때문에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한 공격 행동의 촉진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유사하거나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격성의 측정에서 대다수

Buss(1961)가 고안한 전기충격기법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이 연구 들은 연구대상자 스스로가 공격 행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격성을 표출해야만 한다는 약점이 있다(Fisher & Grenier, 1994).

그렇지만 공격 행동 경향성의 측정은 공격 행동 시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과제가 있었을 경우 더 정교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실험 들의 예가 바로 다트 던지기 과제를 통한 공격성 측정의 Mussweiler와 Förster(2000) 실험이다. 그들은 연구대상자에게 무선적으로 할당된 4개의 사진(남성 얼굴, 여성 얼굴, 과일, 화분)을 한꺼번에 제시 하며 다트를 10차례 던지게 했는데, 이때 연구대상자 스스로 어떤 사진을 목표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다트를 던져야 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사물에 다트를 던지는 것을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그리고 인물 사진에 다트를 던지는 것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인물 사진에 다트 던지는 것을 더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슷한 방법으로 Capezza(2003)는 사격 게임(shooting game)을 이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자에게 스크린을 통해 목표물(예, 게임용 오리, 살아 있는 오리, 도자기, KKK 일원, 히틀러, 평범한 인물 사진 등)을 하나씩 보여주며 장난감 총으로 목표물을 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후 총을 쏘게 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게임용 오리와 사물,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의 인물 사진에는 총을 쏘겠다고 결정하고 총을 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나 평범한 인물 사진에게 총을 쏘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대부분 총을 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는 이유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포와 포르노의 내용면에서 폭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성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빈번하게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은 개인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성범죄의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김덕모, 2003; 윤가현, 2002, 2006; 주정민, 2005). 이에 이 연구는 포르노에 대한 노출이 개인에게 공격성을 촉진한다는 가설 그리고 성적 자극과 공격 행동 경향성간의 관련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서 이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적 자극으로 동영상 포르노를 이용하였으며, 공격 행동 경향성은 Mussweiler와 Förster(2000)가 사용한 닥트던지기 과제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 2. 방법

### 1)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한 대학에서 개설한 심리학 개론과 성심리학 수강생 112명(남학생 56명, 여학생 56명)이었다. 이들의 성적 정체성은 모두 이성애였으며, 또 모두 미혼의 상태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성별에 따라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두 종류의 자극 조건(중립 자극 vs 포르노 자극)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2.19세( $SD=1.78$ ,  $Range=20\sim 26$ )이었는데, 두 가지 자극 조건 간에는 연령 차이가 없었으나( $F < 1$ ),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더 높았다(남 22.96세, 여 21.41세;  $F_{1,110} = 26.04$ ,  $p < .001$ ).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두 종류의 동영상 자극과 닥트 던지기 과제였다. 연구 설계에서 동영상 자극은 독립변인의 하나로 이용되었으며, 닥트 던지기 과제의 경우 서로 다른 목표물(남성의 얼굴 사진 vs 여성의 얼굴 사진)은 독립변인, 그리고 닥트를 던지는 것과 관련된 공격 행동 경향성은 종속측정치가 되었다.

#### 가. 자극 재료

이 연구에서는 10분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동영상 비디오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포르노 자극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립 자극이었다. 포르노 자극은 Youn(2006)에서 사용된 것으로 성인 남녀가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성행위(예, 키스, 손이나 입에

의한 성기 자극, 성교)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성적 학대나 폭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호만족을 위한 내용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는 집단을 실험 집단(experimental group: pornography stimulus group)이라고 칭했다. 포르노 자극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된 중립 자극은 (주)오아시스(2000)에서 제작한 것으로 '환상의 수중 세계'라는 제목으로 태평양 지역의 일부 섬 수중을 촬영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수중 동식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폭력이나 성적 자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극에 노출되는 집단을 비교 집단(comparative group: neutral stimulus group)이라고 칭했다.

#### 나. 다트 던지기 과제

이 연구에서 공격 행동 경향성(aggressive behavioral tendency)은 다트 던지기 과제를 통해 측정했다. 이 방법은 Mussweiler와 Förster(2000)가 사용한 다트 던지기 과제를 응용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에게 20개의 목표물을 중에서 10개를 선택하여 다트를 하나씩 10차례 던지게 하는 방법이었다. 목표물은 지름 10cm의 흑백으로 출력된 실물의 인물 사진과 사물 사진이었는데, 이 중 인물 사진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의 얼굴 사진 5장과 여성의 얼굴 사진 5장 그리고 사물 사진은 과일 사진 5장과 도자기 사진 5장으로 이루어졌다. 20개의 목표물은 60cm x 90cm의 판에 무선적으로 배열된 상태로 제시해두었다.

이 연구의 종속 측정치는 “다트 던지기 과제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인물 사진과 사물 사진 중에서 인물 사진을 몇 개 선택하는가?” 이었는데, 이는 사물보다도 인물 사진을 목표물로 선택하여 다트를 던지거나 총을 쏘는 것이 연구대상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며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Capezza, 2003; Capezza & Valsiner, 2007; Mussweiler & Förster, 2000; Rozin, Millman, & Nemeroff, 198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공격 행동 경향성 점수는 인물 사진을 선택할 경우 1점 그리고 사물의 사진을 선택할 경우 0점으로 채점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 경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하였다.



다트보드(dartboard)의 크기는 45cm x 45cm x 3.5cm(푸마 다트 제조)이었으며, 바닥에서 표적(bull's eye)까지 1.73m 높이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다트의 무게는 34g이었으며, 연구대상자는 다트보드로부터 2.37m 떨어진 거리에서 다트를 던졌다.

#### 다. 연구절차

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0분으로 구성된 두 종류의 동영상 자극 중 하나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다트 던지기 과제를 통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나중에 다트 던지기 과제를 통해 측정하는 공격 행동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자극 제시 과정이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는 이 연구의 실제 목적을 “10분으로 구성된 포르노 영상 또는 자연다큐멘터리 영상 중 하나를 보고 난 후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연구대상자에게 영상물을 보는 것이 조금이라도 불쾌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 언제든지 실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실험 참여에 동의했을 경우 연구대상자를 컴퓨터가 놓여있는 방음된 실험실로 안내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영상물”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은 사전에 실험자가 자극 조건(중립 자극 vs 포르노 자극)에 따라 무선적으로 할당해 놓은 것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파일을 열게 한 다음 10분 동안 영상물을 본 후 영상물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설문지는 5문항(예, 집중하여 몰입할 수 있었다, 호기심을 끌었다 등)이었으며, 9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9점)]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것은 본 실험의 목적이 영상물을 보고 난 후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분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지 작성을 끝내면 실험에 참여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옆 실험실에서 운동기술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잠깐 참여해

줄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승낙한 경우에만 곧바로 다른 실험실로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영상물을 본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운동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 옆 실험실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가 채 되지 않았다. 옆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운동기술과 관련된 실험이 아닌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나, 연구대상자는 이를 모른 채 참여하였다.

실험실에 있는 다른 실험자가 “본 실험은 운동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다트 던지기를 통해 측정한다.”고 안내하고, 연구대상자를 다트 보드로부터 대략 2.37m 떨어진 거리에 서게 하였다. 다트 던지기는 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연습시행 단계로 다트보드의 표적을 향해 다트를 5번 던지게 하였다. 두 번째도 역시 다트보드의 표적을 향해 다트를 5번 던지게 하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표적에 가깝게 다트를 던지는지를 채점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며, 실험자는 다트가 꽂힌 위치를 확인하며 채점하는 척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과제가 단순히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이 연구의 실제 종속 측정치인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연구대상자에게는 “다트의 목표물이 있을 때 다트 던지기 능력이 향상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안내하고, 무선적으로 배열된 20개의 사진 중에서 다트를 던질 10개의 목표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연구대상자가 선택한 목표물의 종류를 기록하였는데, 이때 인물 사진을 몇 개 선택하였는가를 통해 공격 행동 경향성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선택된 목표물을 실험자가 한 번에 하나씩 다트보드의 표점에 부착해주고 연구대상자에게 다트를 던지게 하였으며, 이때에도 얼마나 정확히 목표물에 다트를 던지는지를 채점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지금하고 있는 과제가 단순히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0회의 다트 던지기가 끝난 후 평소에 다트 던지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9점 척도[전혀 하지 않는다(1) ~ 매우 자주 한다(9)]로 측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대상자에게 운동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모두 우연히 부탁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영상물 노출과 공격 행동 경향성간 관련성을 모르고 있었다. 실험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험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목표물을 고른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물어보았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30여분이었으며, 이 연구의 실제 목적은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수업시간을 통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만을 모아 놓고 설명해주었다.

### 3. 결과

이 연구의 분석 틀에 의하면, 성별, 자극 조건 및 목표물은 독립변인 그리고 공격 행동 경향성(다트 던지기 과제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인물 사진을 몇 개 선택하는가?)은 종속변인이었다. 여기에서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자극 조건(중립 자극 vs 포르노 자극)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다트의 목표물(남성의 얼굴 사진 vs 여성의 얼굴 사진)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2×2×2 ANOVA를 통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자극 조건과 성별에 따른 공격 행동 경향성 평균 점수는 <표 1>에 제시되어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OVA 결과, 자극 조건에 따른 주 효과( $F_{1,108} = 47.78, p < .001$ )와 성별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 $F_{1,108} = 15.20, p < .001$ ), 성별, 영상조건, 그리고 목표물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F_{1,108} = 15.20, p < .001$ )가 나타났다.

<표 1> 자극 조건과 성별에 따른 공격 행동 경향성 점수

		자극 조건									
		중립 자극				포르노 자극					
		남성목표물		여성목표물		남성목표물		여성목표물			
		n	M	SD	M	SD	n	M	SD	M	SD
참가자	남성	28	.46	.88	.50	1.04	28	1.43	1.48	2.86	2.16
	여성	28	.43	.63	.46	0.69	28	1.93	1.56	1.25	1.14

(N=112)

<표 2> 성별, 자극조건, 목표물에 따른 공격 행동 경향성에 대한 변량 분석표

변량원	SS	df	MS	F	p
성별(A)	4.86	1	4.86	2.11	.149
자극 조건(B)	110.04	1	110.04	47.78	.000
A × B	3.75	1	3.75	1.63	.204
오차	248.173	108	2.30		
목표물(C)	2.36	1	2.36	2.31	.132
A × C	15.54	1	15.54	15.20	.000
B × C	1.61	1	1.61	1.58	.212
A × B × C	15.54	1	15.54	15.20	.000
오차	110.45	10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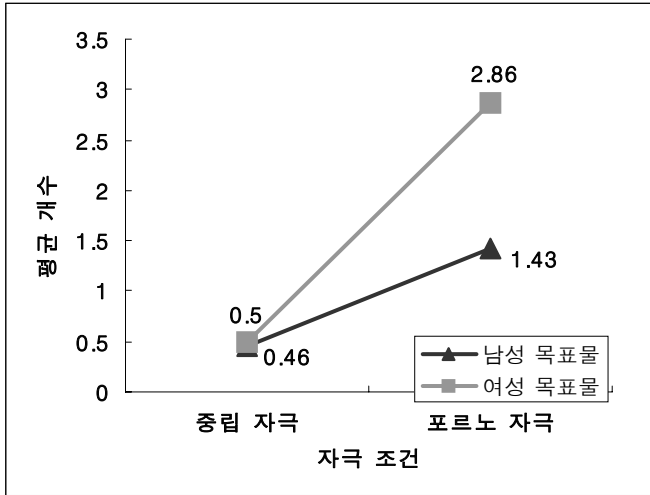
성별, 자극 조건, 그리고 목표물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변인을 하나씩 통제하면서 이원변량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자극 조건에 따른 주 효과( $F_{1,54} = 29.50, p < .001$ ), 목표물에 따른 주 효과( $F_{1,54} = 8.72, p < .01$ ), 그리고 자극 조건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_{1,54} = 7.89, p < .01$ ). 자극 조건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은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사하게 선택하였으나( $F < 1$ ),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은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F_{1,27} = 9.84, p < .01$ )[<그림 1> 참조].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F_{1,54} = 8.81, p < .01$ ),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 역시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 높았다( $F_{1,54} = 27.20, p < .001$ ).

여성의 경우도 자극 조건에 따른 주 효과( $F_{1,54} = 18.39, p < .001$ ), 목표물에 따른 주 효과( $F_{1,54} = 8.91, p < .01$ ), 그리고 자극 조건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_{1,54} = 11.00, p < .01$ ). 자극 조건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은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사하게 선택하였으나( $F < 1$ ),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은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F_{1,27} = 11.56, p < .01$ )[<그림 2> 참조].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F_{1,54} = 22.17, p < .001$ ),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 역시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 높았다( $F_{1,54} = 9.68,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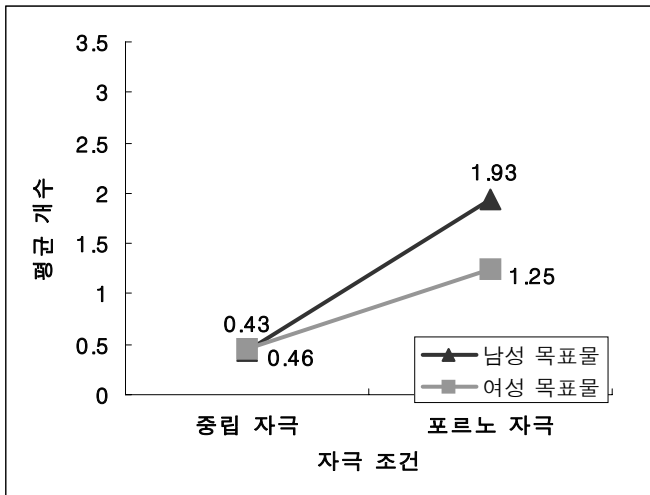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극 조건을 통제했을 때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성별의 주 효과, 목표물의 주 효과, 그리고 성별과 목표물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F < 1$ ).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성별의 주 효과( $F_{1,54} = 2.41, p > .05$ )와 목표물의 주 효과( $F_{1,54} = 2.27$

$p > .05$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과 목표물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_{1,54} = 17.95, p < .001$ ). 성별과 목표물간의 이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F_{1,27} = 9.84, p < .01$ ), 여성의 경우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은 더 많이 선택하였다( $F_{1,27} = 11.56, p < .01$ ).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으나( $F_{1,54} = 1.52, p > .05$ ),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F_{1,54} = 12.15, p < .001$ ).

마지막으로 목표물을 통제하였을 때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의 경우 자극 조건의 주 효과( $F_{1,108} = 29.33, p < .001$ )는 나타났으나, 성별의 주 효과( $F_{1,108} = 1.04, p > .05$ ) 및 성별과 자극 조건간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_{1,108} = 1.39, p > .05$ ).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의 경우 성별의 주 효과( $F_{1,108} = 10.07, p < .001$ )와 자극 조건의 주 효과( $F_{1,108} = 36.85, p < .001$ ), 그리고 성별과 자극 조건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F_{1,108} = 9.21, p < .01$ ). 성별과 자극 조건간 이원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F_{1,54} = 27.20, p < .001$ ), 여성 역시 포르노에 노출된 집단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F_{1,54} = 9.68, p < .01$ ). 한편,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남성과 여성 모두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사하게 선택하였으며( $F < 1$ ),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F_{1,54} = 12.15, p < .001$ ).



<그림 1> 남성자료



<그림 2> 여성자료

<표 3> 각각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의 이원변량분석과 단순주효과 분석표

변량원	F	비교
<b>성별 통계</b>		
남성		
자극 조건(B)	F <sub>1,54</sub> = 29.50***	
목표물 (C)	F <sub>1,54</sub> = 8.72**	
B × C	F <sub>1,54</sub> = 7.89**	
C @ 중립 자극	F < 1	
C @ 포르노 자극	F <sub>1,27</sub> = 9.84**	남성 목표물 < 여성 목표물
B @ 남성 목표물	F <sub>1,54</sub> = 8.81**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B @ 여성 목표물	F <sub>1,54</sub> = 27.20***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여성		
자극 조건(B)	F <sub>1,54</sub> = 18.39***	
목표물 (C)	F <sub>1,54</sub> = 8.91**	
B × C	F <sub>1,54</sub> = 11.00**	
C @ 중립 자극	F < 1	
C @ 포르노 자극	F <sub>1,27</sub> = 11.56**	남성 목표물 > 여성 목표물
B @ 남성 목표물	F <sub>1,54</sub> = 22.17***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B @ 여성 목표물	F <sub>1,54</sub> = 9.68**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b>자극 조건 통계</b>		
중립 자극		
성별 (A)	F < 1	
목표물 (C)	F < 1	
A × C	F < 1	
포르노 자극		
성별 (A)	F <sub>1,54</sub> = 2.41	
목표물 (C)	F <sub>1,54</sub> = 2.27	
A × C	F <sub>1,54</sub> = 17.95***	
C @ 남성	F <sub>1,27</sub> = 9.84**	남성 목표물 < 여성 목표물
C @ 여성	F <sub>1,27</sub> = 11.56**	남성 목표물 > 여성 목표물
A @ 남성 목표물	F <sub>1,54</sub> = 1.52	
A @ 여성 목표물	F <sub>1,54</sub> = 12.15***	남성 > 여성
<b>목표물 통계</b>		
남성 목표물		
성별 (A)	F <sub>1,108</sub> = 1.04	
자극 조건 (B)	F <sub>1,108</sub> = 29.33***	
A × B	F <sub>1,108</sub> = 1.39	
여성 목표물		
성별 (A)	F <sub>1,108</sub> = 10.07**	
자극 조건 (B)	F <sub>1,108</sub> = 36.85***	
A × B	F <sub>1,108</sub> = 9.21**	
B @ 남성	F <sub>1,54</sub> = 27.20***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B @ 여성	F <sub>1,54</sub> = 9.68**	중립 자극 < 포르노 자극
A @ 중립 자극	F < 1	
A @ 포르노 자극	F <sub>1,54</sub> = 12.15***	남성 > 여성

\*\* p < .01 \*\*\* p < .001



#### 4. 논의

실험실내에서 공격성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기법은 Buss(1961)가 고안했던 전기충격기법의 이용이었다. 이 기법은 연구대상자가 실험실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경험(예, 분노)을 상대방에게 전기충격으로 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문제점은 적어도 두 가지가 된다. 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상황적으로 강요했다는 점과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나 비공격적인 방법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 행동을 측정했다는 점이다(Fisher & Grenier, 1994).

이에 연구대상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공격 행동을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대상자 스스로 공격적인 행동과 비공격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하여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Mussweiler와 Förster(2000)가 다트던지기 과제를 이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무선적으로 할당된 4개의 사진(남성 얼굴, 여성 얼굴, 과일, 화분)을 한꺼번에 보여주며 참가자에게 10차례의 다트를 던지게 했는데, 이때 참가가 스스로 어떤 사진을 목표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다트를 던지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20개의 목표물(남성 얼굴, 여성 얼굴, 과일, 화분 사진 각각 5장)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다트를 던질 10개의 목표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트를 던질 목표물로 사물 사진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대상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지 않지만, 인물 사진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불안이 야기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Capezza, 2003; Capezza & Valsiner, 2007; Mussweiler & Förster, 2000), 연구대상자가 공격적으로 행동할 의도가 없다면 인물 사진보다도 사물 사진을 더 쉽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이 연구에서 다트던지기 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연구대상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물에 의해 촉발되어진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공격 행동을 촉진하는지를 그리고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공격 행동을 촉진한다면 그러한 경향성이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 자극 조건, 목표물을 독립변인으로, 공격 행동 경향성(다트 던지기 과제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인물 사진을 몇 개 선택하는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격 행동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공격 행동을 촉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과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공격 행동 경향성의 점수를 살펴보았더니,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과 비교하여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에서 공격 행동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보다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에서 다트의 목표물로 인물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0.93개 vs. 3.73개). 이는 성과 공격성의 연합의 맥락에서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촉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Allen et al., 1995a; Malamuth et al., 2000; Mussweiler & Förster, 2000; Pollard, 1995; Seto et al., 2001; Vega & Malamuth, 2007).

다음으로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공격 행동을 촉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Koss, 1987; Mussweiler & Förster, 2000), 먼저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에서 성별에 따라 공격 행동 경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립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성별에 따른 공격 행동 경향성의 차이는 없었는데(0.96개 vs. 0.89개), 즉, 중립 자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두드러지게 공격적인 행동 경향성을 촉진하지 않았다. 그 반면, 포르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은 공격 행동 경향성을 보였지만(4.29개 vs. 3.18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포르노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해 공격 행동 경향성이 촉진되며, 그러한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내에서

연구대상자에게 포르노를 노출시켰을 때 공격 행동이 촉진되는데, 그 경향성은 남녀에게서 유사하다는 Allen 등(1995a)의 설명과 같았다.

마지막으로 성적 자극에 대한 노출이 남녀 모두에게 공격 행동 경향성을 촉진한다면, 공격 행동이 어떤 성별의 사진을 향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립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를 먼저 살펴보면, 남성은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사하게 선택하였으며(0.46개 vs. 0.50개), 여성도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얼굴 사진을 유사하게 선택하였다(0.43개 vs. 0.46개). 이는 중립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연구대상자들이 보이는 공격 행동 경향성이 특정한 성별을 향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포르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성별을 향해 공격 행동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남성은 다트의 목표물로 여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1.43개 vs. 2.86개), 여성은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1.93개 vs. 1.25). 포르노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공격 행동 경향성을 더 보인다고 해석된다. 특히 다트의 목표물로 남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1.43개 vs. 1.93개), 여성의 얼굴 사진을 선택한 개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다(2.86개 vs. 1.25개)는 점을 볼 때 여성이 남성에게 보이는 공격 행동 경향성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보이는 공격 행동 경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Buss(1961)가 고안한 전기충격기법을 이용한 실험에서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가 동성보다 이성일 경우,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후 공격성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사하지만(Allen et al., 1995a; Donnerstein 1980; Malamuth et al., 2000; Seto et al., 2001), 본 실험에서는 다트의 목표물로 사용된 인물 사진이 자신을 화나게 한 상대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 사진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적 자극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특히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실시된 공격성에 대한 실험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전기충격기법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연구대상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다트던지기 과제를 이용하여 영상물에 의해 촉발되어진 공격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예견했던 것처럼 성적 자극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촉진하였으나 선행 연구(Koss et al., 1987; Mussweiler & Förster, 2000)처럼 그러한 경향성이 남성에만 촉진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그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게 촉진되었으며, 공격 행동 경향성이 동성보다 이성을 더 향했으며, 또 그러한 경향성이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트던지기 과제를 통해 성적 자극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던 이 연구의 결과는 해석상에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그 이유는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이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보다 다트의 목표물로 인물 사진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한 것이 성과 공격성간의 자동적 연합의 결과인지, 포르노 노출로 인한 생리적이거나 주관적인 흥분감 혹은 혐오감의 결과인지, 또는 포르노 자극에 대한 노출로 인한 인물에 대한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인 공격성의 표출인지 그 선택의 과정이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험이 끝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목표물을 선택한 이유를 참고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중립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대다수는 “사진이지만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트를 던지는 것은 안 된다. 사물에 다트를 던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포르노 자극에 노출된 집단의 일부는 “저 사람을 갖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흥미를 느껴서”라며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말을 하였으며, 대다수는 “사람에게 던져보고 싶어서”, 또는 “그냥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서”라고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잘 모르겠어요!”라며 의식적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르노 노출과 관련한 어떤 요인이 공격 행동 경향성을 촉발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연구대상자 스스로 인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공격적인 행동을 결정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영상이나 생각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여 성적 자극과 공격성간의

관련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적 자극에 노출된 후 성적 자극의 어떠한 요인이 공격성을 촉발하는지 살펴보기나(예, 과거 경험) 혹은 성적 자극을 제시하기 전후로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서 상태를 개입시켜 그러한 정서상태가 포르노 노출 후 공격성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근래 인터넷 동영상상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포르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성을 비하하며 남성에게 종속된 인물로 묘사하거나, 학대와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주제로 삼거나, 또는 가학성—피학성과 같은 변태성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포르노의 내용에 따라 성적 자극을 세분화시킨 상태에서(예, 폭력성과 비폭력성 포르노)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김덕모. 2003.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이용 형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3): 15-50.
- 남영옥. 2004.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성비행의 심리사회적 변인.” 『청소년학연구』 11(1): 167-192.
- 윤가현. 2002. “포르노 노출 및 그 영향.” 『목회와 상담』 2: 204-226.
- 윤가현. 2006. 『성 문화와 심리(제2판)』. 서울: 학지사.
- 이건호·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성식. 2004.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청소년학연구』 11(2): 22-45.
- 주정민. 2005.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이용과 지각적 편향.” 『한국방송학보』 19(4): 565-603.

- 한인영·박인선·백연옥. 2001. "청소년들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138-148.
- (주)오아시스. 2000. 『환상의 수중세계1』 .
- Allen, M., D'Alessio, D., & Brezgel, K. 1995a. "A meta-analysis summarizing the effects of pornography II: Aggression after exposur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258-283.
- Allen, M., Emmers, T. M., Gebhardt, L., & Giery, M. 1995b. "Pornography and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Communication*. 45: 5-26.
- Barak, A., Fisher, W. A., Belfry, S., & Lashambe, D. R. 1999. "Sex, guys and cyberspace: Effects of internet pornography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men's attitudes toward women."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11: 63-92.
- Boeringer, S. B. 1994. "Pornography and aggression: Associations of violent and nonviolent depictions with rape and rape proclivity." *Deviant Behavior*. 15: 289-304.
- Buss, A.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Y: Willey.
- Capezza, N. M. 2003. "The cultural-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violence and nonviolence: An empirical study."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On-line Journal]. 4(2). Available at: <<http://www.qualitative-research.net/fqs-texte/2-03/2-03capezza-e.htm>>
- Capezza, N. M., & Valsiner, J. 2007. "The making of nonviolence: Affective self-regulation in a shooting game." In E. Abbey & R. Diriwüchter (eds.). *Innovating genesis: Microgenetic approach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 Demaré, D., Lips, H. M., & Briere, J. 1993. "Sexually violent pornography, anti-women attitudes, and sexual agg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285-300.

- Donnerstein, E. 1980. "Aggressive erotica and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269-277.
- Donnerstein, E. 1984. "Pornography: Its effect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N. M. Malamuth & E.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pp. 53-84. Orlando, FL: Academic Press.
- Ember, C. R. 1981.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sex differences." In R. H. Munroe & B. B. Whiting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human development*. pp. 531-580. NY: Garland.
- Felson, R. B. 1996. "Mass media effects on viol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03-128.
- Fisher, W. A., & Grenier, G. 1994. "Violent pornography, antiwoman thoughts, and antiwoman acts: In search of reliable effec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23-38.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Malamuth, N. M., Addison, T., & Koss, M. 2000.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Are there reliable effects and can we understand them?"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26-91.
- Mussweiler, T., & Förster, J. 2000. "The sex→aggression link: A perception-behavior di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507-520.
- Pollard, P. 1995.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Current Psychology*. 14: 200-221.
- Rozin, P., Millman, L., & Nemeroff, C. 1986. "Operation of the laws of sympathetic magic in disgust and other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03-712.

- Segall, M. H. 1988. "Cultural roots of aggressive behavior." In M. H. Bond (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pp. 208-217. Newbury Park, Calif: Sage.
- Seto, M. C., Maric, A., & Barbaree, H. E. 2001.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etiology of sexual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 35-53.
- Vega, V., & Malamuth, N. M. 2007. "Predicting sexual aggression: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ggressive Behavior*. 33: 104-117.
- Youn, G. 2006. "Subjective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erotica: Effects of gender, guided fantasy, erotic stimulus, and duration of exposur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 87-97.
- Zillmann, D. 1984. *Connections between sex an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양동욱**(교신저자)은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동 대학 심리학과에서 강의하며,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정상담소·다솜누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초경 후 경과기간에 따른 월경에 대한 태도"(2002, 공저)가 있다.

**윤가현**은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9년부터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 "Subjective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erotica"(2006),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model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 Korea-American, and white-American caregivers"(2007, 공저) 등이 있다.

[2007. 8. 25. 접수; 2007. 9. 12. 채택]